

여항 가객 작품에 나타난 경제 상황과 문화적 지향

- 김천택과 김수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강재현*

〈차례〉

1. 서론
2. 조선후기 여항인의 신분 인식
3. 작품에 나타난 경제상황과 문화적 지향
 - 3.1 김천택 작품의 경제상황과 문화적 지향
 - 3.2 김수장 작품의 경제상황과 문화적 지향
4. 결론

〈국문초록〉

조선 후기 시조 가단을 이끈 존재는 여항 가객들이다. 이들은 여항인이라는 신분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 여항인은 조선후기 서울의 주요 구성원으로 첫째 서울에 거주하며 둘째 일정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무시하지 못 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태생적인 신분적 한계-양반이 아님-을 지니고 있어 자신들을 窮人이라고 자처하는 신분 의식을 지녔다.

18세기 가단을 이끈 김천택과 김수장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여항인이다. 김천택은 포교의 신분으로 남산 아래 무반들 거주지에 자신의 집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경제 상황은 여타 여항인처럼 풍족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답적인 문화 지향을 가졌는데 고검 수집과 음주의 작품과 정격적 시조 음악 창출로 나타난다.

김수장은 서리로 김천택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서울의 절승지인 화개동에 집을 짓고 가단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김천택과 같은 무반류의 풍류를 지양하였다. 그런데 그의

* 충남대학교

이러한 성향은 그를 퇴폐적 문화 지향으로 나타나는데 여성 편력과 변주적 시조 음악의 창출에 그것이 반영되어 작품으로 나타난다.

여항 가객들은 이처럼 자신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문화적 지향을 작품에 표출한 것이다.

핵심어 : 여항인, 가객, 경제 상황, 문화적 지향, 풍류

1. 서론

조선 후기 시조의 흐름을 이끈 존재는, 김천택을 필두로 김수장, 안민영으로 이어지는 여항 가객들이다. 그런데 동시대의 여항 한시 작가에 비하여 그들의 傳記的 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한 연유로 작품에 대한 역사주의적 비평이 한계를 드러내고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 조선후기 실질적으로 사회를 주도하던 여항인에 대하여서도 명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항 가객들에 대한 실질적 신분 및 여건 논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여항인에 대한 범주 규정은 ① 騙校·計士·醫員·譯官·日官·律官·唱才·賞技·寫字官·畫員·綠事(中人), 掖屬·曹吏·廛民(市井)¹⁾ ② 서얼층 포함²⁾을 합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세부적 견해는 갈라져 있다. 허경진은 서얼층을 제외하자 하였고³⁾ 강명관은 신분적 규정을 넘어 경야전과 기술직 중인이라는 직업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이 경향이 계급적 동질성으로 나아갔다고 보았다.⁴⁾ 여기에 사학계의

1) 『弘齋全書』 49권, 名分.

2)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74.

3)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4) 강명관, 『조선 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고동환은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불안한 가운데 이들 신분이 상업 도시화한 서울을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인이라는 요소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⁵⁾ 큰 틀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성에 대한 세부 논의에서는 각 의견에 각각의 장점이 내재하고 설득력이 있어 한 편의 손을 들기 어렵다.

그런데 일치된 큰 틀은 첫째, 여항인이 조선 후기에 강한 영향력을 지녔음과 둘째, 이러한 배경으로 경제력이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항 가객 가운데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있었을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여항 가객이 마치 잔치 자리에 고용되는 빈한한 신분으로 이러한 고용을 통해 생계를 연명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함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이 잘못 된 것이며 여항 가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각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다.

특히 김천택과 김수장처럼 가단을 이끈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재된 역량이 충분하다고 여긴다.⁶⁾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숙종대 경아전에서 실질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천택은 포교를, 김수장은 병조 서리를 지냈다고 그들의 증언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당대 같은 신분의 여항인이 갖던 경제적 역량을 살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그간 여항 시조가 사대부 아류 혹은 모사적 상황 제시로 흐르거나 여항인의 피해 의식의 반영 등으로 흐르던 작품 분석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삶의 궤적이 실제 그들이 누리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의 주제 의식과 문화적 지향 역시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학계에 축적된 논의를 통하여 당대 서울의 변화와 여항인의 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서울의 성격 변화는 신분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항인도 그 영향 하에 있음을 통하여 본

5)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p.197.

6) 張福紹, 『海東歌謠』, 「海東歌謠跋」, 金君壽長 與南坡金天澤 相對敬亭山 兩翁卽當世 洞歌者也.

격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삼도록 한다. 다음으로 김천택과 김수장의 경우에서, 작품에 나타난 경제 상황과 그것이 발현된 문화적 지향을 보이게 한다. 조선후기 가객 집단의 수장으로 활동한 두 사람을 통하여 당대 가객들이 지녔던 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른 작품 창출에서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2. 조선후기 여항인의 신분 인식

조선후기 문화의 한 축인 여항인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역사 양 방향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본고의 대상인 여항 가객 역시 이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보편적 여항인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이 지니는 경제적 위상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역사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여항인 자신이 가졌던 경제력과 신분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요건을 바탕으로 하는 신분적 지위를 주로 검토하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옥자가 ‘위항지사로 만족한 삶’이라 표현한 조선후기 여항을 대표하던 시인 張混(1759-1828)이 언급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덟 가지의 맑은 복을⁷⁾ 검토하도록 한다.

여덟 가지 맑은 복

첫째 태평성대에 살며, 둘째 서울에 거처하고, 셋째 의관의 대열에 들고, 넷째 문자를 알고, 다섯째 샘물 흐르는 경승지에, 여섯째 많은 꽃나무를 기르고, 일곱째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여덟째 좋은 글을 쌓는 것⁸⁾

위의 여덟 가지 요소들에는 시대성과 사회성을 모두 담겨 있다. 정옥자

7)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pp.67-68.

8) 張混, 『而已廣集』 권 14, 「平生志」, (附) 淸福 八品 一曰生太平 二曰居京都 三曰幸列衣冠 四曰粗解文字 五曰泉壑一區 六曰花木千株 七曰得心交 八曰蓄好書

는 그의 저서에서 청복 팔복이 지니는 의의를 구명하지는 않았지만 장흔이 이러한 여덟 가지를 평생지에 부기하여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다. 필자는 팔복 내용이 가지는 구체성으로 볼 때, 장흔이 자신이 여항인으로서 누리고 있거나 영유하고자 한 복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시대성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어 팔복 가운데서도 핵심적 조건으로 보인다.⁹⁾ 우선 태평성대라 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기를 긍정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동시기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단서이다. 즉 시대적 일체감이 우선 순위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로 보이는 것은 특정 공간이다. 이이엄은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살고 있어야 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로의 한정은 여항인들이 자신들만의 영역을 경계짓는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셋째는 그들이 일정한 衣冠의 대열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監印所 司準이었던 장흔의 신분으로 볼 때, 여항인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공적 업무에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 바로 恒産이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존재여야만 여항인으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항인의 기본 조건은 서울에 사는 공적 업무를 통한 봉록을 지닌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중 본고와 밀접한 둘째와 셋째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서울이라는 공간이 조선후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사학계의 논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고동환은 서울이 조선후기에 상업도시로 변모하였음을 밝혔다.

17세기 후반 이래 서울은 대동법과 금속 화폐의 전국적 유통을 계기로 노

9) 나머지 가운데 넷째 역시 여항인으로서의 자격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여항인 대다수가 문자를 알고 있었기에 당연한 것이라 여겨 제외한다.

동력의 상품화(雇立化)가 촉진됨으로써 상업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성취된 교통로의 발달은 서울과 지방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시장권의 중심 도시로 서울을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소빙기 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 유민들의 서울 집주가 가속화되어, 서울 인구의 증가와 인구 구성의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17세기 이래의 사회 변화는 왕과 관료들이 거주하는 정치·군사·행정 중심지라는 전통적인 왕도인 서울을 상업 도시로 전환시키는 요인이었다.¹⁰⁾

상업 도시로의 전환 안에서 여향인들이 주체로 부각됨이 증명된다. 그들은 경야전의 실세와 시전 상인이 대다수였으므로 서울 경제의 주축에 서 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장혼은 이러한 경제적 주축에 서서 문화를 지극히 향유하는 자들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의 변모는 인구 구성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 대동법(1708년, 숙종 34년) 실시 이전에는 종실, 부마, 사대부, 의, 역, 서도(胥徒), 시민이 중심이었다면, 대동법 이후에는 직임자, 서리, 공인, 시전 상인, 군병, 영세 소상공인, 수공업자, 한잡류로 구분되고 있다.¹¹⁾ 이 구성원들 가운데 장혼이 말한 셋째 의관의 대열은 어디까지인가. 이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기록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서울 주민들 중에서 職任者는 봉록을 받아서 살며, 서리는 秒稟으로 살고, 隸軍伍者는 군포를 받아서 산다.¹²⁾

도성 안 주민들 중 附吏, 胥徒, 軍人, 卒伍 등은 모두 넉넉하게 먹고사는 자들이다.¹³⁾

19세기 초의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여향인들 가운데서도 서리와 군오

10) 고동환, 앞의 책, p.162-163 요약 인용.

11) 고동환, 앞의 책, 4장, 2절, 1) 인구 구성의 변화와 상업 인구의 증가 항목 참조.

12)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1825)년 11월 21일. 고동환, 앞의 책 p.137 재인용.

13) 『승정원일기』 1970책, 순조 9(1809)년 8월 29일. 고동환, 앞의 책 p.137 재인용.

들은 모두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관의 대열은 위의 경우들처럼 공적 업무에 종사하여 일정한 봉급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요약하면, 여항인은 상업 도시로 변한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 주체에 서 있고, 그 가운데서 조정의 일에 관여하며 봉급을 받는 자들인 것이다. 본고의 대상인 김천택과 김수장은 모두 이 부류에 해당한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포교와 서리가 여항인들이 지녀야 할 두 자격 조건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항인의 신분 중에서 포교와 서리만을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서리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므로 이를 먼저 보기로 한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다음 같은 기록이 있다.

서울 이서의 경우 병조의 서리와 사령에게는 모두 매월 價布 3필을 준다.¹⁴⁾

1660년 초, 즉 현종대 초기에 이미 병조 서리가 받는 녹급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서리에 대한 경제적 인식은 이러한 봉급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선발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하게 된다.

조선 후기 서리의 선발방식은 지방민을 3년에 한 번 吏曹에서 일괄적으로 取才를 통해 선발하여各司로 分送하던 방식에서 坊民을 대상으로各司의 官長이 선발권을 가지고 수시로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¹⁵⁾

이러한 충원 방식의 변화는 대동법 이후 雇立化¹⁶⁾가 정착하며 이권 다툼의 대상으로 서리의 면모를 바꾸었다. 원재영의 논의에 따르면 서리의

14) 유형원, 『반계수록』 권20, 祿制攷說, 國朝祿制. 신해순, 「17세기 전후 동반 소속 하급 경야전제도의 변화 -書吏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40호, 고려사학회, 2010.8, p.128 재인용.

15) 원재영, 「조선후기 경야전 서리 연구-19세기 호조서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03, p.233.

16) 신해순, 앞의 논문, pp.105-146 참조.

자리가 세습화되고, 이를 대신이나 중신가의 廉從(廉人)들이 차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8세기 초 숙종조의 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庫直이나 胥吏 자리가 비면 대신이나 중신들이 어지럽게 청탁을 해읍니다.¹⁷⁾

위의 기록대로 본다면 서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리에 현실적 잇속이 없다면 이러한 청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리들의 이러한 실속은 국가에서 거의 공인받았던 情例, 그리고 불법적 逋欠, 그리고 賣職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¹⁸⁾ 즉 서리라는 신분 계층이 단순히 관청의 서무를 담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양성적, 음성적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1711년 숙종 37년 실록 기록을 통하여 청탁의 대상에 포교도 포함되고 있어 서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심지어는 軍校·吏胥의 결원이 있어도 청탁이 따라 이르니, 이는 실로 오랫동안 쌓인 고질과 폐단입니다.¹⁹⁾

대동법 시행과 함께 맞물려 모든 공역이 고립화 되면서²⁰⁾ 포교의 경제적 가치 역시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청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부를 누리던 이들이지만 이 부류에게는 일정한 한계와 그에 따른 신분의식이 함께 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이 지니는 신분제의 고착에서 온 기회박탈로 이러한 정황을 아래 기록에서 찾을 수 있

17) 『숙종실록』 권 38, 숙종 29년 10월 계사.

18) 원재영, 신해순, 이지양(「이재난고로 본 18세기 각사 서리의 존재양상」, 『한국실학연구』15, 민창사, 2008.06, pp.227-261)의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 『숙종실록』 권 50, 숙종 37년 10월 계사.

20) 고동환, 앞의 책, pp.133-136.

다.

대가(大駕)가 동문(東門)을 나섰을 때 길 북쪽에 한 사람이 진(陣) 안에 서서 장대나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무 끝에 종이를 매달았는데, 종이에 는 ‘궁인포원(窮人抱冤)’ 네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다. 물어보라고 명하였 더니, 곧 상소를 올리려는 사람이었다. 즉시 상소를 봉입하라 명하였는데, 곧 서열(庶孽) 진사(進士) 정진교 등 2백 60명의 상소였다.²¹⁾

위의 기록은 서열들이 영조가 자신들이 올린 상소를 보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막고 시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궁인포 원’의 네 글자이다. 여기서 ‘窮人’은 ‘빈곤하여 생활이 궁한 사람’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궁인’의 의미가 경제적 입장이 아 닌 신분적 처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서열들이 자신들을 ‘궁인’이라고 칭한 것은 신분에서 오는 정신적 궁핍으로 해석해야 옳다.

영조 21년 이주진이 庶類 뿐만 아니라 여항의 卑微者라도 재능에 따라 등용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 실록에 전한다.²²⁾ 이는 ‘궁인’에 대한 당대 사회적 주장이 서열만이 아니라 일반 여항인에게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고 언급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면을 본다면 서열만이 아니 라 여타의 여항인들 역시 이러한 신분적 한계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즉 ‘곤궁하다’는 표현은 여항인 전체에 통칭할 수 있 는 것이고, 이는 신분적 불만을 표출한 것이지 경제적 가난으로 볼 수 없 는 경우라고 하여야 하겠다.

이상의 역사학계의 논의와 실록 자료를 통해서 여항인들은 자신들의 계층에 편입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았다. 서울이라는 공간, 그리고 공적 업무, 그리고 신분적 제약에서 오는 의식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그 런데 포교와 서리라는 직임은 이러한 자격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을 확

21) 『영조실록』 권2, 즉위(1724)년 12월 병술. 정옥자, 앞의 책, p.37 참조.

22) 『영조실록』 권62, 21년 7월 갑술. 정옥자, 앞의 책, p.37 참조. 주21)과 주 22)의 실록 자료는 정옥자가 먼저 사용하였으나 필자와 달리 신분적 문제만을 거론하였다.

인하였다. 그렇다면, 본고의 대상인 남파와 노가재 역시 당대의 이러한 기 반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필자는 두 작가의 작품에서 이러한 구체적 모습을 찾아 그것을 경제의식과 문화적 지향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작품에 나타난 경제상황과 문화적 지향

여항 가객의 중심에 있던 김천택과 김수장은 각각 포교와 서리의 직분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처럼 이 직분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가객의 작품에서 실제 이러한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창출된 작품의 성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3.1 김천택 작품의 경제상황과 문화적 지향

『청진』에 수록된 30수의 김천택 작품에서 경제적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지만, 김천택의 성향 자체가 고아한 풍모를 즐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 蔓橫淸類 序이다.

만횡청류는 그 노랫말이 淫哇하고 그 담긴 뜻이 寒陋하여 법으로 삼기 부족하다.²³⁾

만횡청류의 언급이지만 그의 성품이 음왜하고 한누한 것을 즐기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그였기에 자신의 작품에

23) 김천택, 『청구영언』, 만횡청류서, 蔓橫淸類 辭語淫哇 意旨寒陋 不足爲法.

서 이러한 경향의 것들을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택의 이 같은 성향은 그의 시조 첫 번째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榮辱이 並行하니 富貴도 不關트라
第一江山에 내 혼자 님자되야
夕陽에 낙싯대 두려메고 오명가명 흐리라 (청진 256)

초장에서 김천택은 자신과 富貴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만황청류서와 연결하면 이러한 부귀가 바로 음쇄, 한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사는 致仕 이후의 고관이나 方外人의 江湖閑情계열 작품에서 어울릴 법한 표현이다. 그러한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과가 세상의 이권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천명을 한 것을 보면 그의 성품에 이러한 高踏的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이러한 격조있는 정신 세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음 작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南山 나린 골에 五穀을 2초 심거
먹고 못나마도 굶지나 아니하면
그 밭과 너나쁜 富貴야 브랄줄이 이시라 (청진 259)

위에서 보듯 김천택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고답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그의 거주지가 남산 아래다. 여기서 남산이 개간된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동환에 따르면 남산이 개간된 것은 1758년의 일이다.²⁴⁾ 『청진』의 편찬 연도가 1728년임을 고려하면 259에서 언급된 ‘남산 나린 골’은 산 자락 어느 골짜기가 아닌 남산 아래 동네를 언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서울의 5府 43坊²⁵⁾ 중 南府에 속한 남산 아래의 회현

24) 고동환, 앞의 책, p.157.

25) 조선시대 방의 수는 변화가 있으나 이 시기는 43방으로 본다.

방, 명례방, 훈도방, 선명방, 명철방, 낙선방 가운데 한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 서울은 소빙기 기후 변화에 의한 유민의 대거 유입으로 급격한 주택난을 겪고 있었다. 그 와중에 도시 빈민들까지 형성되어 불법 건축물까지 나타난 형편이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택은 자신의 집에 오이를 심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²⁷⁾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김천택은 경제적 자립도를 일정 부분 지니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일반적 貧者와는 다른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이 표출된 것이 다음 작품이라고 하겠다.

田園에 나쁜 興을 전나귀에 모도 짓고
 溪山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희(야) 琴書를 다스려라 나쁜 희를 보내리라 (청진 261)

하루를 즐겁게 田園에서 보내고 그 흥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이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와 책 읽는 소리로 남은 시간을 보낸다. 경제적 여유로움이 없다면 이러한 흥취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흥의 발현이 남과 작품이 지향하는 세계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포교이다. 즉 생래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분성과 경제성이 상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집약한 것이 아래 작품이다.

雲霄에 오르전들 노래 업시 어이히며
 蓬島에 가자히니 舟楫을 어이히리
 출하리 山林에 主人되야 이 世界를 니즈리라 (청진 262)

초장과 중장은 김천택 자신이 겪고 있는 신분적 제약을 말하고 있다.

26) 고동환, 앞의 책, pp.157-160.

27) 울밋 陽地入편에 외씨를 썬허두고(260)

그는 더 이상 위로 陞差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으로 바뀐다. 山林을 흔히 자연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서울이라는 성도 내에 거주하는 김천택에게는 이러한 해석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산림은 서울 즉 남산 아래에 마련된 자연과 최대한 접해 있는 거주지라고 보아야 하겠다. 즉, 일반 도시민이 가질 수 없는 경제적 안돈함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적 제약 가득한 현실을 잊고 高踏的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그런데 여항인 가운데서도 포교는 그 처지가 여타와 다르게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여항인의 중심인 기술직 종인과 서리들이 대개 상촌(우대)에 살던 데 비하여 군교들은 주로 하촌(아래대)에 살았고, 그에 따라 무반적 성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²⁸⁾ 즉 군교들의 생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다 보니 그의 작품에서도 武와 관련된 언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綠駟霜蹄 櫪上에서 늙고 龍泉雪鏢 匣裏에 운다
丈夫의 혜은 뜻을 속절 업시 못이로고
귀밧테 흰 털이 늘니니 글을 설워 흐노라 (청진 264)

장검을 싸혀들고 다시 안자 헤아리니
胸中에 머근 뜻이 邯鄲步 | 되야괴야
두어라 이 쏘한 命 이여니 닐러 므슴 흐리오 (청진 265)

두 작품의 주제적 해석을 배제하고 표면에 제시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보면 김천택 자신이 훌륭한 말과 빼어난 검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과 주변의 생활 공간 안에서 배태된 소재나 주제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중 칼에 대하여, 고동환은 조선 후기 서울 도시민들 사이에서 古劍의 수장이 새로운 감각의 생활 취미 중 하나였다고 말하며 박지원의 <김신선전>을 제시하였다.²⁹⁾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8) 고동환, 앞의 책, pp.353-385.

29) 고동환, 앞의 책, pp.200-203.

누각동(樓閣洞) 김 첨지(金僉知)는 바둑을 좋아하고, 그 뒷집 이 만호(李萬戶)는 거문고를 좋아하고, 삼청동(三清洞) 사는 이 만호는 손님을 좋아하고, 미원동(美垣洞) 사는 서 초관(徐哨官)과 모교(毛橋) 사는 장 첨사(張僉使)와 사복천(司僕川)가에 사는 지 승(池丞)은 모두 손님을 좋아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이문안(里門內) 조 봉사(趙奉事)라는 분도 역시 부친의 친구 분인데 그 집엔 이름난 화초가 가득 심겨져 있고, 계동(桂洞) 유 판관(劉判官)은 기서(奇書)와 고검(古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³⁰⁾

서울 도시민들의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고검의 수장인 것이다. 남과 역시 생활의 여유에서 오는 취미로 長劍을 수장하였는데 264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가치 있는 - 용천이나 설악과 대비될 수 있는 - 칼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타의 서화고동과는 달리 고검은 그 지닌 바가 웅혼하고 장부의 기상이 서린 소장물이다. 김 천택은 자신의 취미 활동의 이면에 응지를 펴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넘을 수는 없으니 단지 취미 활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나니 남은 것은 술이다. 여향인 시조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술 소재를 남과는 이 한탄 바로 뒤로 붙여 노래한다.

生前에 富貴키는 一杯酒 만흔 것업고
 死後 風流는 陌上花 썬이여니
 므스일 이 죠흔 聖世에 아니 醉코 어이리 (청진 266)

이러한 취함의 興趣라 하더라도 남과는 단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 성세를 누리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함을 잊지 않아 高踏의 경지를 다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을 것은, 『청구영언』이 만들어진 1728년은

30) 朴趾源, 『燕巖集』 제8권 別集, 「放璫閣外傳」, <金神仙傳>, (前略)樓閣洞金僉知好碁 後家李萬戶好琴 三清洞李萬戶好客 美垣洞徐哨官 毛橋張僉使 司僕川邊池丞 俱好客而喜飲 里門內趙奉事 亦父友也家蔣名花 桂洞劉判官有奇書古劍(後略)

영조 연간으로 금주령의 시대라는 점이다.

“재작년 인정전(仁政殿)에서 진하(陳賀)할 때에 신하들에게 경계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붕당(朋黨)이고 하나는 사치이며 술을 경계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미 술을 경계하였는데 술을 금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이 때문에 도민을 침탈하여 원망을 위로 돌린다면 통탄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 현착(現捉)한 사람들을 각별히 두 차례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고 사유(赦宥) 때에도 용서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포청을 시켜 엄탐하게 하였다.³¹⁾

임금이 이처럼 강하게 금주를 시행하라 하였는데 그해 남파의 『청구영언』에는 이와 같은 국법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파의 이 행위를 범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시기에 만든 노래이므로 별 의식없이 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 또한 남파의 이러한 음주 행위가 저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왜냐하면 작품에 담긴 음주의 풍류가 ‘盛世’라는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음주는 앞서 말한 음왜나 한루로 치우치지 않는 경지인 것이다. 음주의 격을 높인 남파의 의식이 엿보인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고상한 취미와 격조 있는 음주 생활의 기반은 바로 그가 지닌 경제력이라 하겠다. 그의 작품에 고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남파가 恒産에서 오는 恒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남파는 숙종조의 포교였다. 그는 당대 경제 체제의 변이에 의하여 서울에 살면서도 일정한 여유를 지닌 존재였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태생적 제약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남파는 당대 흐름인 고검 수장파, 음주를 취미로 삼아 이러한 공허함을 달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파는 그 안에서 고답적 자세를 잃지 않아 스스로 품격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 『영조실록』 권18, 영조 4년 6월18일.

3.2 김수장 작품의 경제상황과 문화적 지향

조선후기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경제적으로 포교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서리이다. 즉 김수장이 김천택보다도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리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논의는 사학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많은 논문이 축적되어 있다.³²⁾ 그러므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의 작품을 살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명할 것이 바로 김수장의 신분 문제이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숙종조 기성(병조) 서리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작품에서 스스로 밝힌 신분의 단초는 이것과는 다르다.

折衝將軍 龍驤衛 副護軍 날을 아는다 모로는다
 닉 비록 늙었시나 노리 춤을 추고 南北漢 놀이 갈 제 썩러진 적 업고 長安
 花柳風流處에 안이 간 곳 업는 날을
 閣氏네 그다지 숙보와도 흐룻밤 격거보면 多數흔 愛夫들에 將帥 | 될 줄
 알이라 (해주 559)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가재는 자신을 절충장군이며 용양위 부호군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병조 서리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이 직분이 실제가 아닌 명예직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소속인 용양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익(1681~1763)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이르면 5위 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실제 군제가 아님이 확인된다.³³⁾ 즉, 작품에 나타나는 行守法의 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유명 무실한 군제의 품계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밀

32) 이미 거론한 신해순과 원재영, 이지양의 논문 이외에도 유봉학, 「목록 《공사기고》에 나타난 19세기 서리의 생활상」, 『규장각』 13, 서울대 규장각, 1990.12, pp.1-19 등과 고동환의 앞의 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이익, 『星湖僿說』 권9, 人事文, 五衛.

은 바로 壽職이다. 수직이란 老人職이라고도 불리던 제도로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벼슬아치와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이다. 이 수직으로 수여되기 가장 좋은 품계와 직급이 유명무실해진 오위이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수직으로 빈번히 용양위가 사용된 것이다.

하지만 기준에 따르면 『해주』가 완성된 시기인 74세 이전(『해주』의 서에 나온 年齒)이므로 노가재는 수직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국문학 작가 중 이와 비슷한 예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노계 박인로(1561~ 1642)이다. 1630년 그는 72세에 老人職으로 ‘용양위 부호군’이 되었다.³⁴⁾ 그렇다면 굳이 해당 연치가 되지 않아도 수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가재 역시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수직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그가 실제로 수행한 실임은 서리가 정확하고 작품에서는 늘그막히 수여된 수직을 자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분의 의문이 해결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김수장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해보겠다. 먼저 그의 거주 공간에 나타나는 경제 상황이 눈에 띈다.

花開洞 北麓^호에 草菴을 엮어신이
 바람비 눈설이는 글렁질렁 지너여도
 언어제 다스흔 히 빗치야 썩야볼 쏘 잇시라 (해주 471)

화개동은 서울 종로구 화동의 옛 이름으로 북악산 자락을 지칭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화개동(花開洞) 안국방(安國坊)에 있는데, 지역이 치우쳐서 술 마시며 시 읊기에 적합하다. 이 동리에 옛날 토기도감(土器都監)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여 화개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³⁵⁾

34) 한국고전종합DB, 『노계집』 해제.

35) 『新增東國輿地勝覽』 3권, 비고편-제2편, 「동국여지비고」 名勝條.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화개동은 서울에서도 명승으로 꼽히는 곳이었다. 전언한 바와 같이 당시 서울의 주택 사정은 좋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곳에 노가재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작품에서 노가재가 자신의 집에 가지는 자부를 볼 수 있다.

慶會樓 萬株松이 눈 알피 벌러잇고
 寅王 鞍峴은 翠屏이 되엇는디
 夕陽에 翩翩白鷺는 오락가락 흐노리 (해주 439)

실제 집 안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앞으로는 경복궁의 경회루가 훤히 보이고 뒤로는 인왕산과 안현이 취병처럼 둘러 있다. 취병은 생울타리로 우리에게서는 주로 궁궐에서 보이는 장식이다. 그런데 노가재는 취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생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만한 시각적 호사는 드물다. 이와 같은 명승지에 집터를 마련할 정도라면 노가재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해동가요』 U.C본의 김시모의 <노가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문제로 남는다.

집이 평소 가난하여 적은 곡식이라도 자주 비었고 그 처자가 굶주림을 걱정하면서도 담담하였으니 그 뜻이 또한 숭상할 만하다.³⁶⁾

김시모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앞에 말한 화개동 주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명승처에 집을 짓고 다시 그것을 재축하고 나서 받은 기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말한 여향인들의 ‘窮人’으로 처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즉 ‘담담함’은 경제적 여건에 一喜一悲하지 않는 처지를 나타낸 것이지 실제 곡식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 작품을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해 진다.

36) 김시모, 「노가재기」, 家素貧 儻石屢空 妻子阻飢而淡如也 其志亦可尙也.(박을수편저, 『시조의 서발유취』, 아세아문화사, 2000, p.91 재인용)

蝸室은 不足호나 十景이 버러 잇고
四壁圖書는 主人翁의 心事로다
이밧기 군마음 업스니는 닛분인가 호노라 (해주 474)

초장은 집 주변에는 경치가 빼어나 열 가지나 꼽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화개동의 풍광과 맥이 이어진다. 그런데 중장의 ‘사벽도서’가 문제의 핵심이다. 노가재는 자신이 평소에 마음 쓰는 일로 네 벽을 채운 그림과 책을 말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이것들이야말로 당대의 호사로운 취미였던 古董書畫 수집이다.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취미 활동을 노가재는 자신이 마음 쓰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³⁷⁾ 상당한 부의 기반을 필요로 하는 서화 수집을 노가재는 자신의 취미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집이 가난하다는 김시모의 언급은 당대 여항인의 窮人 의식의 발로이지 실제의 생활 궁핍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노가재의 문학적 지향은 남파와 어떻게 다른가. 남파의 경우 武班的 취미와 격조있는 음주 문화 같은 고답성을 지녔음을 밝혔다. 그런데 노가재는 우선 武를 기반으로 한 풍류에 대해 下視한다.

長安甲第 벗님네야 이 말슴 들으시소
몸치레 흘연이와 마음치레 호여보소
솔直領 장도리 風流에란 브디 즐여 말으시 (해주 481)

노가재가 초장 중장을 거쳐 행세하는 벗들에게 하는 경고의 주된 내용은 ‘새 무관복과 장도리 풍류’, 즉 武弁들의 풍류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류의 주된 인물은 노가재에게 남파였을 것이다. 남파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 의식³⁸⁾이 이러한 작품까지도 소산한 것으로 보인다.

37) 고동서화에 대한 당9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제3부, 소명, 1999)에 의해서, 여항인의 모습은 고동환의 연구(앞의 책)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38) 강재현, 「《海東歌謠》所在 金壽長 自作 時調 排列 意圖」,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12, pp.73-95.

이처럼 남파의 무변류를 경계하며 자신의 지향으로 삼았던 풍류의 모습
이 어떠했는지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池塘에 月白하고 荷香이 襲衣홀 제
金樽에 술잇고 絶代佳人 弄琴커늘 逸興을 못익의여 界面調를 읊퍼느니 松
竹은 휘들오며 庭鶴은 춤을 춘다 閒中 이 興味에 늣을 뒤을 모른노다
이中에 悅親戚樂朋友로 以終天年 ㅎ리라 (해주 537)

작품에서 노가재는 자신의 풍류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주거에서 오는 것으로 노가재는 연못이라는 풍류의 공간을 조
성하였다. 그 못 위로 달이 밝고 그 아래 연 향기가 옷에 스미는 시간이
노가재 풍류의 시간이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배경이 완성되면 이제 본
격적인 풍류의 실제이다. 금 향아리에 찰랑이는 술과 아름다운 여성이 탄
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노가재는 계면조로 호응하며 노래한다. 음
악에 맞추어 나무와 학이 춤을 추니 이보다 흥취나는 일이 없어 이들만
있다면 늣을 겨를도 없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노가재는 현실의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파 작품에서 나타나는 풍류의 소재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남파와 노가재의 풍류에서 가장 극
명하게 비교되는 것이 바로 성향, 즉 문화적 지향이다. 남파가 고답을 풍
류의 지향으로 보았다면, 노가재는 현세적이고 富華한 풍류를 향하고 있
는 것이다. 실제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도록 한다.

노리갓치 ㅈ코ㅈ흔 줄을 벗님네 아돏든가
春花柳夏淸風과 秋月明冬雪景에 彌雲昭格蕩春臺와 漢北絶勝處에 酒肴爛
漫흔디 ㅈ흔벗 가즌稽笛 아름다운 아모가히 第一名唱들이 차례로 벌어안즈
엇걸어 불을 썩에 中한닙 數大葉은 堯舜禹湯文武갓고 後庭花樂時調는 漢唐
宋이 되엿는디 搔簞이 編樂은 戰國이 되야이서 刀槍劍術이 각자 騰揚ㅎ야
管絃聲에 어리엿다
功名도 富貴도 나 몰리라 男兒의 이 豪氣를 나는 ㅈ화 ㅎ노라

(해주 598)

작품에서는 음악에 대한 모습이 주로 나타난다. 당대 유행하던 가창 곡 조들을 중국 역사로 대비하여 지칭하고 있다. 관악기와 현악기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 노가재의 신분이 가객이었음을 고려할 때, 음악에 대한 자부감이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남파가 ‘음왜하고 한루’하다고 논평한 ‘만황청류’의 변주곡인 ‘搔箏이 編樂’을 ‘전국시대’에 빗대면 큰 줄기의 하나라고 말한다. 남파가 내면적으로는 몰라도 표면적으로 본받을 것이 없다고 말한 것들을 노가재는 당당하게 음악의 한 부류로 놓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작품에서 부화하게 표현한 것이 배경이다. 앞 작품에 나타난 주거 내부 공간에서 벗어나 한강 북쪽(북촌)의 여러 곳으로 확대되고, 시간 역시 연이 피는 여름을 포함한 사시사철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곳과 시간에서 즐기는 음악이야말로 남아의 호기라고 노가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과 함께 술이 빠질 수 없다. 중장에 보이듯 연회 자리에 술과 안주가 두루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다. 한림별곡류의 술 자랑은 노가재 작품에 없지만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기에 술이 담긴 ‘금 향아리’ 역시 한림별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꽤나 호사스러운 술자리를 연출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노가재의 음주는, 남파의 ‘안돈함’ 안에서 즐긴 그것과 차이가 있다. 즉 노가재의 술은 사회적 격조를 지닌 것이 아니라 세속적 풍류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재로 나타난다.

끝으로 살필 풍류 소재는 여성이다. 작품에 그려지는 대로 파악한다면 노가재의 여성 편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갓나희들이 여러 層이오레
 松骨미도 갖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갖고 百花園裡에 두루미도 갖고 綠水波
 瀾에 비오리도 갖고 싸히 안즌 쇼로기도 갖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갖데

그러도 다 各各 님의 스랑인이 皆一色인가 ㅎ노라 (해주 554)

노가재의 이러한 여성 편력과 흡사한 기록이 『禦睡新話』에 전한다.

북산 밑의 한 부자가 맡은 바를 잘 경영하여 넉넉한 재산을 배경삼아 스스로 풍류객이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친구들을 모아다가 가무로 지새웠고, 의녀며 침기며 명창들이 없는 날이 없었다.³⁹⁾

이문규는 이 부자를 서리 출신이라고 하였는데⁴⁰⁾ 문면에 나타나는 부자의 여성편력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⁴¹⁾ 그런데 시조 작품에서 밝힌 노가재의 편력 역시도 만만치 않다. 이문규의 주장대로 주인공이 서리라고 한다면 장한중(1768-?)이 그려낸 북산 아래 부자를 노가재라고 하여도 믿을 정도이다. 이러한 성의 직접적 편력을 다룬 노가재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풍류는 남과가 꺼리던 ‘淫哇’를 넘어선다.

그렇다면 노가재는 왜 이처럼 넘치는 풍류를 즐기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신분 의식 때문이라고 보인다. 아래의 작품을 통하여 노가재가 말하는 자신의 신분을 보도록 한다.

非龍非鬻非熊非羆非虎非貔는 渭水之陽 姜呂尙이요
 非人非鬼亦仙은 水簾洞中 孫悟空이로다
 이 중에 非眞似眞似狂非狂은 花谷 老歌齋 衞가 ㅎ노라 (해주 566)

노가재는 자신이 眞과 狂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즉 신분적으로 이도저

39) 장한중, 『어수신화』, 123, 乃寫汝母조, 一富人在於北山下 累經營所任 而以家産之所贍 自爲風流浪子 日聚朋友歌舞消遣 醫女針妓名唱 未嘗一不相疎也.

40) 이문규, 「조선 후기 서울 市井人의 생활상과 새로운 지향 의식」, 『서울학 연구』5, 서울시립대부설서울학연구소, 1995.6, p.154. 저자가 사용한 자료가 어느 이본인지는 분명치 않다.

41) 이어지는 내용으로 내의원(의녀), 상의원(침선비), 공조, 혜민서, 중부, 서부 등 오부, 주탕(관기), 은근짜, 형조와 경주부의 하전(여자 중), 거주지 모름(지시한 사람), 팔도 등의 수많은 여성을 유언 삼은 기록으로 남기는 장면이 있다.

도 아닌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광’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狂’의 개념이 유교적 사고로는 단순히 ‘미치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논어』 공야장에 나타난 ‘狂(簡)’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보면 ‘뜻은 크다(하지만 행동이 소략한 사람)’⁴²⁾이다. 그렇다면 ‘非眞非狂’에서 ‘진’이 가리키는 것과 ‘광’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자신을 둘러싼 신분적 상황을 가리킨다고 본다. 양반이 아님에도 넉넉함을 즐기고 있고 여향인 중에서도 상위에 있다고 자신을 밝힌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양자 모두에서 자유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태공망과 손오공이 그 존재를 구명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종장의 자신도 그런 존재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처지에서 누릴 수 있는 풍류를 구애받지 않고 모두 만끽한 것이며 그러한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작품 안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가재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고 있다.

노가재는 서리 출신이다. 그는 수직으로 높은 품계를 부여받았지만 이를 자신의 신분이라 밝히지 않았다. 그 까닭은 자신이 지닌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이러한 신분적 굴레에 굳이 속박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력과 신분의 한계는 그가 퇴폐적 풍류를 지향하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4. 결론

조선후기 가단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이들이 여향 가객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타의 여향인과 다르게 전기적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그들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논의는 작품 내부의 단편적 언급에 의존한 바가 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42) 『논어』 공야장 21장. 狂簡志大而略於事也.

그들의 경제적 여건과 그에 따른 문화적 지향을 김천택과 김수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조선후기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가 상업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항인이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였음을 밝혔다. 여항인 중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포교와 서리는 기본적 봉록을 받아 기본 생활 경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동법 시행 이후 이권을 형성할 수 있던 이 자리에 대한 경쟁이 심해진다. 즉 아무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기본 봉록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외의 경제적 이익 남게 되니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분적 제약에 의하여 스스로를 ‘窮人’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경제적 빈궁이 아닌 사회심리적 처지를 한탄함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김천택의 경우 포교의 신분이었다. 그는 여타 여항인들이 우대에 살던 것과 달리 남산 밑 아래대에 살았다. 서울의 주택 상황이 좋지 않던 시기에 그는 자신의 주택을 보유할 정도의 자산을 지녔다. 또한 무변의 입장에서 고검 수장을 할 정도의 여가 생활을 하였다. 그가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남과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지향을 高踏으로 잡고 있다. 그가 만황청류 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음쇄’, ‘한루’한 것을 꺼린 이유가 바로 그가 바라던 고아한 흥취의 발현이었기 때문이다.

김수장은 서리의 신분으로 남과에 비해 더 큰 부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대 서리가 비싼 값으로 매직될 정도이니 그의 부를 상상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수직으로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제수받았다. 이러한 재력과 명예를 바탕으로 그가 지향한 문화는 남과류의 무변적 풍류가 아니다. 그런데 노가재의 작품에 드러나는 풍류의 실체는 퇴폐성이라 할 정도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언급에서 살필 때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진다. 물론 고서 수집과 같은 고아한 문화 지향도 나타나지만 퇴폐성향이 그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다.

이상에서 여항 가객 가운데 김천택과 김수장의 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

른 문화적 지향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이러한 의견에 통해 다양한 가객들과 기존 여항인들의 관계, 사대부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弘齋全書』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靑丘永言』

『海東歌謠』

柳馨遠, 『礪溪隧錄』

朴趾源, 『燕巖集』

張漢宗, 『禦睡新話』

張混, 『而已廣集』

한국고전종합DB(<http://www.itkc.or.kr>)

강명관, 『조선 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 1999.

강재현, 「《海東歌謠》 所在 金壽長 自作 時調 排列 意圖」,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12, pp.73-95.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74.

박을수 편저, 『시조의 서발유취』, 아세아문화사, 2000.

-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 신해순, 「17세기 전후 동반 소속 하급 경야전제도의 변화 -書吏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40호, 고려사학회, 2010.8, pp.105-146.
- 원재영, 「조선후기 경야전 서리 연구-19세기 호조서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03, pp.227-277.
- 유봉학, 「목록 《공사기고》에 나타난 19세기 서리의 생활상」, 『규장각』 13, 서울대 규장각, 1990.12, pp.1-19.
- 이문규, 「조선후기 서울 市井人의 생활상과 새로운 지향 의식」, 『서울학 연구』 5, 서울시립대부설서울학연구소, 1995.6, pp.105-142.
- 이지양, 「이재난고로 본 18세기 각사 서리의 존재양상」, 『한국실학연구』 15, 민창사, 2008.06, pp.227-261.

투고일 : 2011년 12월 28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Economic Situation and Cultural Direction through the Works of Lyeohang Gagaek – Focusing on the case of Kim Cheontaek and Kim Sujang

Kang, Jae-heon

It was Lyeohang Gagaeks who led the group of Sijo singer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y are based on the social class 'Lyeohangin'. Lyeohangin was the major member of Seoul population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and a social class who first lived in Seoul and second, engaged in the public works and had a great economic power. Despite of it, they had the inherent limit in social position – not belong to Yangban (noble class) – and had a status recognition by calling themselves as 'Gungin (窮人)'.

Kim Cheontaek and Kim Sujang who led the group of artists in the 18th century are also Lyeohangin who meet these three conditions. Kim Cheontaek had a title of Pogyo but had an economic power enough to have his own house in the residential area of military nobility around the Namsan. Considering the housing status of Seoul at that time, this represents his considerable economic power. Thus his economic situation must be rich and affluent like other Lyeohangin. Based on this economic power, he had the high brow cultural direction which led to the collection of old swords and the creation of the works of drinking and the regular Sijo music.

Kim Sujang as Seori, had an economic superiority to Kim Cheontaek.

Based on his economic power, he built his house in Hwagae-dong, a place of superb scenic beauty and could be the head of the group of artists. However, such economic power that he had appears on his works with decadent cultural trend. Other than the high toned contents of Kim Cheontaek, such trend was reflected in the creation of variant Sijo music of Kim Sujang who has involved with various women, and appears on his work.

Lyeohang gagaek expressed the cultural direction suitable for their aiming on their works based on their own economic power.

Key words : Lyeohangin, gagaek, Seoul, Gungin(窮人), economic situation, cultural direction, a taste for the arts